

큰스님 수행한담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31) (佛言)有人患淫不止 欲自斷陰 (불언)유인환음부지 욕자단음 佛謂之曰 若斷其陰 不如斷心 불위자왈 약단기를 불여단심 心如功曹 功曹若止 從者都息 심어공조 공조약지 종자도식 邪心不止 斷陰何益 사십부지 단음하의 佛爲說偈 欲生於汝意 意以思想生 불위설계 욕생여의 의이사상생 二心各寂靜 非色亦不行 이십각적정 비색여비행 佛言 此偈是迦葉佛說 불언 차게시가섭불설

'무릇 도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만인과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을 입고 성문을 나섰는데 혹은 겁을 먹기도 하고 혹은 중도에 풀러설 수도 있고 혹은 싸워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겨서 돌아올 수도 있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마땅히 마음을 굳게 다져 먹고 부지런히 용맹정진하고 다가서는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아 온갖 마구니를 쳐부수어야 도과를 얻게된다.'

(34) 沙門 夜誦迦葉佛遺教經 사문 야송가섭불유교경 其聲悲緊 思悔欲退 기성비緊 思悔欲退 기성비緊 사회욕퇴 佛問之曰 汝昔在家 曾爲何業 佛問之曰 汝昔在家 曾爲何業 불문지왈 여석재가 증위하업 對曰 愛彈琴 對曰 愛彈琴 대왈 애탄금 佛言 絃緩如何 對曰 不鳴矣 佛言 絃緩如何 對曰 不鳴矣 불언 현완여하 대왈 불명의 絃急如何 對曰 聲絕矣 佛言 絃急如何 對曰 聲絕矣 현급여하 대왈 성절의 急緩得中如何 對曰 諸音普矣 急緩得中如何 對曰 諸音普矣 급완득중여하 대왈 제음보의 佛言 沙門學道亦然 心若調適 道可得矣 佛言 沙門學道亦然 心若調適 道可得矣 불언 사문학도亦然 心若調適 道可得矣

'어떤 사람이 음욕이 그치지 않음을 걱정해서 자기 음경을 끊으려 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음경을 끊음이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다. 마음이란 저 관청과 같아서 관청이 쉬면 종사자들도 쉰다. 그런데 사악한 마음은 그치지 않고 음경만 끊는다고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고 했다. 부처님이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욕망은 그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은 사랑 분별에서 일어나니 그 두 마음이 적절하면 색도 색이 아니고 또

애욕 좇으니 근심걱정 생긴다

만약 애욕 여의면 무엇이 두려우랴

한 행동도 행이 아니다. 이 계승은 가섭 불게서 하신 것이니라.'

(32) (佛言)人從愛欲生憂 從憂生怖 (불언)인종애욕생우 종우생포 若離於愛 何憂何怖 약리어애 하우하포

불언 사문학도역연 심약조적 도가득의 於道若繫 行則身疲 意則生惱 於道若繫 行則身疲 意則生惱 어도약포 행즉신피 기신약피 의즉생뇌 意若生惱 行則身疲 意則生惱 意若生惱 行則身疲 意則生惱 의약생뇌 행즉신피 기신약피 의즉생뇌 但淨淨安樂 道不失矣 但淨淨安樂 道不失矣 단청정안락 도불실의

'사람이 애욕을 좇으니 근심걱정이 생기고 근심걱정을 좇아 두려움이 생긴다. 만약 애욕을 여의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이 두려우랴.'

(33) (佛言)夫爲道者 譬如一人與萬人戰 (불언)부위도자 비여일인여만인전 袞離出門 意或怯弱 或半路而退 袞離出門 意或怯弱 或半路而退 과개출문 의혹겁약 혹반로이퇴 或格斷而死 或得勝而還 或格斷而死 或得勝而還 혹격투이사 혹득승이환 沙門學道 應當堅持其心 沙門學道 應當堅持其心 사문학도 응당堅持其心 精進勇銳 不畏前境 精進勇銳 不畏前境 정진용銳 不畏前境 破滅家魔 而得道果 破滅家魔 而得道果 파멸종마 이득도과

한 사문이 밤에 가섭불의 유교경을 의우는데 그 소리가 비장한게 회한 때문에 수행이 퇴보하는 듯이 들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집에 있을 때 무슨일을 했는가?' '거문고를 즐겼습니다.' '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을 아주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찢어지고 맙니다.' '줄을 아주 조이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음이 곱습니다.' '사문이 도를 배울도 그러하다. 마음이 만약 고르고 알맞으면 도를 이룰수 있고 만약 거칠게 물이치면 수행으로 피로해질 것이다. 몸이 피로해지면 마음에 번뇌가 일고 번뇌가 일면 수행이 퇴보하게 된다. 수행이 퇴보하면 죄업이 더해질 것이니 오직 심신을 청정 안락케 해야 도를 잃지 않게된다.' 龍眼

“화 내는 일 다스리면

도성스님 (태종사 조실)

요즘 한창 조계종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갈등은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갈등과 서로 옳다고 하는 분쟁을 해소하려면 올바른 기준이 서야 합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로 사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는 세상을 올바르게 본다고 하지 비틀게 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푸른 안경을 끼면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면 붉게 보이는 것이죠. 즉 탐 진 치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과 계 정 혜를 기준 삼아 보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아주 다르다는 말이지요. 갈등의 해결은 타진 치 삼독을 버린, 계 정 혜의 맑고 밝은 눈으로 살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님이 몇십년을 살아도 사실 별반 중요하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도 짚어서 50년 가까이 웃어른을 모시고 도반들하고 같이, 후학들을 데리고 살았다는게 전부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사는 전부이기도 하죠. 그렇게 어울려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 나와의 생활을 좋은 기억으로 회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지낼 때 어른의 말씀은 존중하고 도반들과 의견 차이가 날 때면 내가 옳다 생각하더라도 저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내 의견을 주장하면 싸움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죠. 또 어떤 사람하고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항상 내 행동에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나쁘게 하거나 아무거나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철저한 이들은 어디에 가서는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1925년 평안남도 출생
- 53년 부산 선암사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 선암사, 불국사, 석굴암 동화사 등서 정진사 등서 정진
- 77년 해인사 주지
- 90년 해남 대둔사 주지
- 현 부산 태종사에 주석

“화가나면 호흡을 조절 번뇌 탐진치 털어낼때 계정혜가 살아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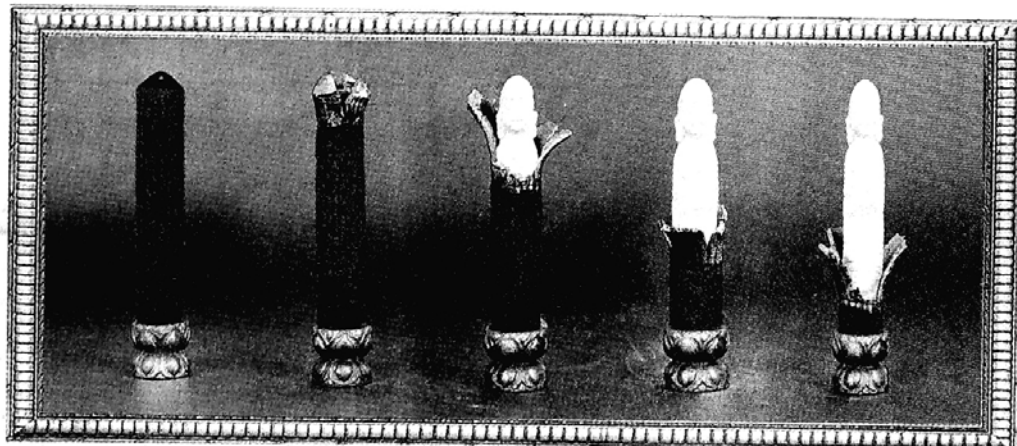
한 모양이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맨처음 부산의 선암사로 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 큰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것이죠.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모두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부처님 말씀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했는데 은사하신 지월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은사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래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철스님도 한암스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키가 큰 분도 아니고 잘생긴 분도 아닌데 그렇게 존경을 받을수 있었던 것은 늘 자비심이 넘치고 항상 정진하시고 계를 어기는 일은 안하려 노력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부산 태종대에 태종사를 짓고 살게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지월스님께서 하시는 "이번에 내가 부산 태종대에 갔더니 절을 꼭 지어야 될 곳이 있더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스님, 있는 절도 말하면 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새 절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모르는 소리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해인사에서

지내다가 선암사로 가게 될때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태종대에 이번엔 꼭 가보라"고 하세요. 태종대에 와보니 조그만 동산쯤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넓어요. 이 넓은 장소에서 스님이 봐 둔 절 지을 만한 장소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죠. 몇년후 지월스님이 병이 나서 부산에 와 계실 때 또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도 대답만 해 놓았는데 3월에 스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해 12월 영도 백련사에 있을 때입니다. 신도집에 가다 길을 잘못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구정장에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구정장 방에 들어서니 구정장이 운전기사를 불러 "선암사에 가서 도성스님을 모셔오라"고 지시하고 있더군요. 1분만 늦었어도 그 시사는 출발을 했을 것이고 1분만 빨랐어도 그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텐데 아주 묘하게 바로 그 시각에 내가 들어섰던 겁니다. 태종대에 절을 짓게 되었는데 그걸 나한테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기위해 만나고자 했던거였어요. 묘한 인연이지

■ 의장등록 : 98-19350
■ 상표등록 : 98-28434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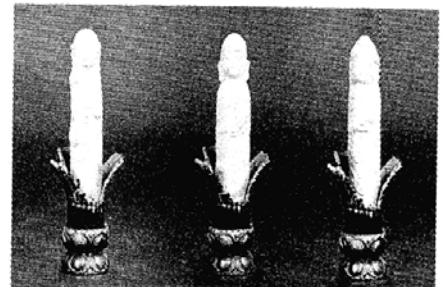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색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1시간 30분 정도이고, 길항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범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범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향과 걸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제일 돛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제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 광주·전라남북/ 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간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간